

한·쿠웨이트 비즈니스포럼 연설

존경하는 알 가님 쿠웨이트 상의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비즈니스포럼 위원장,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쿠웨이트 비즈니스포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곳에 도착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쿠웨이트의 역동적인 성장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를 걸프지역의 무역·물류 중심국가로 도약시키려는 지도자들의 열정과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쿠웨이트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대의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4년 동안 경제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민영화와 같은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원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여기 계신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으로 쿠웨이트 경제가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뤄 갈 것으로 믿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와 우리 경제인들은 쿠웨이트가 가고자 하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나라 간 경제협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2년 24억 달러이던 교역 규모가 지난해 8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품목도 원유와 석유제품 중심에서 자동차·휴대폰·TV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제1차 경제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열려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어졌습니다.

이틀 전 제가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과 GCC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면 두 나라 간의 교역과 투자는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어제 사바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플랜트·건설·IT 등 여러 분야의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역시 건설·플랜트입니다. '아흐마디 해상터미널' 공사가 보여 주듯이 우리 기업의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뿐 아니라 계약서에 없는 추가적인 서비스도 이행하는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데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쿠웨이트석유공사와 SK건설 간의 원유 집하시설 건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공사든 한국 기업에 맡기면 반드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쿠웨이트는 원유의 12%, LPG의 15%를 공급하는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협력 파트너입니다.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쿠웨이트 에너지협력위원회를 출발점으로 이 분야의 협력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쿠웨이트는 IT산업을 경제 개발의 역점 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 있고 DMB와 와이브로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에 가면 지하철이나 승용차, 거리에서 TV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IT협력 약정은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함께 나누고 쿠웨이트의 IT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쿠웨이트의 IT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쿠웨이트 경제인 여러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뤄 냈습니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열심히 달려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혁신 주도형 경제로 빠르게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은 선진국과 같이 오래된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국 기업인들이 성공의 과정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입니다. 걸프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 가고 있는 쿠웨이트 경제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많은 양국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뜻 깊은 자리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KOTRA와 쿠웨이트 산업청 간에 협력의향서도 교환되었다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비즈니스포럼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슈크란 좌질란(대단히 감사합니다).”